

음악대학 학생의 진로탐색경험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개발역량의 상관관계*

이 승 민** · 장 근 주***

본 연구는 음악대학생의 진로탐색경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개발역량 관계 파악을 목적으로 서울과 경기 지방의 음악 대학 1~4학년 303명 음악전공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일반적 특성, 진로탐색경험, 진로결정수준, 진로개발역량의 4영역이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대학 학생의 전공과 학년 및 진로탐색경험 유무는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개발역량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성악전공에서 진로확신수준이 높았다. 둘째, 진로탐색경험은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진로확신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며, 진로개발역량의 평생학습능력, 직업/취업정보 수집, 활용능력, 네트워킹 능력에 영향을 주었다. 셋째, 진로개발역량과 진로결정수준은 전체적으로 부적상관이 있으나, 각 하위요소 간의 상관관계는 정적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진로탐색경험, 진로결정수준, 진로개발역량

차 례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1. 진로결정수준
2. 진로개발역량의 개념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도구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IV. 연구결과

1. 진로탐색경험에 따른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개발역량
2. 진로탐색경험 유무에 따른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개발역량
3.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개발역량 상관관계

V. 논의 및 제언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교신저자)

I. 서론

개인이 대학생 시기를 통해 성취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정서적으로 독립하여 진로를 계획하고 구체화하여 실제적인 사회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것이다. 특히 지식기반사회로 일컬어지는 현대는 급격한 사회 및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정형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표준화된 인력으로는 적절히 대처하기에 난점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필요와 요구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실현할 필요성이 있다.

음악대학 학생들은 긴 준비과정이 요구되는 특성 상 음악을 전공해야겠다는 결단을 통해 큰 틀에서의 진로결정과정을 이미 한 번 경험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음악인으로 발돋움 했음에도 현실적으로 음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수용할 사회적 기반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2006년 9월에 서울의 A대학교에서 자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졸업생의 평균 취업률이 54%인데 반해 음악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7.5%으로 조사되었다(서울 연합뉴스, 2006; 심윤경, 2007, 재인용).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 이외에도 학생들은 진로를 개척해나가는 데 있어 본인이 주도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구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탐색과정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의 능력과 흥미를 면밀히 파악하여 진로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역량을 길러 생활의 질을 높이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더불어,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에서 나아가 학문 간의 융합을 중시하는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음악인에게도 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에서 나아가 전체적인 사회의 요구와 변화를 조망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한다.

이러한 실정에서 음악대학생의 진로에 관련된 연구 전공 선택에 관련된 요인을 조사하거나 졸업 이후 진로에 대한 교육과정 적합도(정환호, 최진호, 2013), 음대생들의 희망직업과 진로 자기효능감을 조사(주희선, 2013), 음악전공자의 직무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다른 학문과의 융합을 통한 교육과정 지향방안에 대한 연구(이나영, 2011)등으로 미술과 체육의 타 예체능 분야에 비해 대학생의 진로교육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또한 대학교 차원의 교육과정 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진로에 관련한 학생들의 내적 변인들을 통해 진로지도가 나아가갈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대학생의 진로탐색경험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역량개발수준과에 미치는 영향

을 밝힘으로써 음악대학생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대학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과 진로결정수준은 전공과 학년 및 진로탐색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음악대학 학생의 진로탐색경험은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 개발역량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음악대학 학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개발역량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진로결정수준

진로의사결정이란 개인이 정보를 조직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진로선택을 위한 행동 과정에 전념하는 심리적인 과정(한효정, 2012)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진로의사결정이론은 개인이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 및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진로결정수준 이론은 개인의 진로결정이 어느 한 순간에 절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진로결정을 확신의 정도라는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에 진로결정수준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데서 시작되었다. 진로결정수준이란 자신의 전공 및 직업의 선택과 관련된 확신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 확신의 정도가 높은 상태를 결정으로 확신의 정도가 낮은 경우를 미결정으로 개념화하였다.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진로 미결정을 측정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 진로결정수준과 관련된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검사도구는 오시포, 카니와 와이너, 야니코 그리고 코스칠(Osipow, Carney, Winer, Yanico & Koschir, 1976)에 의해 개발되어 여러 차례 수정된 CDS (Career Decision Scale: 진로결정수준 척도)이다. 이는 개발자들의 임상적 경험에 바탕을 두고 미결정의 원인을 알기 위해 고안된 도구이며(유지선, 2004),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 정도를 측정하는 확신성 척도(Certainty Scale)와 진로에 대한 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미결정 척도(Indecision Scale)로 구성되었다.

2. 진로개발역량

역량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합의된 개념을 찾기 어렵고, 학문분야에 따라 기초 능력, 작업기초능력 혹은 핵심역량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활용되고 있는 개념이다(최동선 외, 2008). 단어가 사용되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지니기도 하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삶의 능력과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역량을 진로 분야에 적용하면 진로개발역량이라 일컫는데 이는 개인이 진로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으로 삶의 지향점 설정과 진로선택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와 성향을 포괄하는 개념(최동선 외, 2008)이다. 그러므로 진로개발역량은 단편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체험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류재윤, 이유경, 2012).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대상은 13개 학교 음악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이며 건반악기 전공 51명, 관악 전공 52명, 성악 전공 51명, 작곡 전공 49명, 한국음악 전공 48명, 현악 전공 52명으로 총 303명이다. 현재 음악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의 전공별, 학년별 학생들의 비율을 고려하여 층화표집(stratified sampling)하였다. 총 3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11부를 수거하여 97%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회수한 설문지에서 무응답 및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303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학년	1학년	71	23.4
	2학년	69	22.8
	3학년	91	30.0
	4학년	72	23.7
전공	건반악기	51	16.8
	성악	51	16.8
	관악기	52	17.2
	작곡	49	16.2
	한국음악	48	15.8
	현악기	52	17.2
합 계		303	100.0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를 연구도구로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54문항으로 크게 일반적 특성, 진로탐색경험, 진로결정수준, 진로개발역량의 총 4영역이다. 여기서 일반적 특성은 배경변인으로 하위 구성내용은 학년과 전공으로, 진로탐색경험은 종속변인으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개발역량은 독립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진로탐색경험은 진로탐색경험여부(1문항), 경험한 진로교육의 형식(1문항), 경험한 진로교육의 총 시간(1문항), 경험한 진로교육의 내용(1문항)의 총 4문항이다. 각각의 영역 측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

구분	구성내용(하위영역)	문항수	합계
일반적특성	전공, 학년	2	2
진로결정수준	진로와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수준	2	18
	교육과 진로미결적의 전제조건	16	
진로개발역량	관점/태도	12	30
	기술/능력	18	
진로탐색경험	진로탐색경험 여부	1	4
	진로탐색경험의 형식	1	
	진로탐색의 총 시간	1	
	진로탐색경험내용	1	
총 문항수			54

1) 설문지 구성

(1)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은 진로결정수준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인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수준(2문항), 교육과 진로미결정의 전제조건(16문항)의 총 18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수준 측정을 위해 사용한 연구도구는 오시포 외(1980)에 의해 개발된 CDS로 고향자(1992)가 국내 실정에 맞게 번안한 것을 본 연구의 음악대학 학생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2) 진로개발역량

진로개발역량은 하위요인을 크게 관점/태도, 기술/능력으로 구분하였고 총 30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진로개발역량 측정을 위해 사용한 연구도구는 미술대학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안선영(2013)의 진로개발역량 측정도구를 음악대학 학생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안선영의 연구는 미국의 진로개발역량지표(NCDA, 1989)를 번안한 이지연(2001)의 연구도구를 토대로 한 우리나라의 진로개발역량지표(2004)를 기초로 한다.

2)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나의 개념에 대해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에 사용되는 Cronbach's α 계수(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표 3>은 진로결정수준 설문지를, <표 4>는 진로개발역량 설문지의 신뢰도를 나타낸 것이다. 진로결정수준 설문지와 진로개발역량 설문지의 신뢰도 계수 모두 모든 문항에서 .87 이상으로 나타나, 각 문항 간 내적 일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신뢰도

구성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계수
전공 선택에 대한 진로확신수준	1 ~ 2	2	.798
진로 미결정 수준	3 ~ 18	16	.883
전체		18	.826

<표 4>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신뢰도

구성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계수
관점 · 태도	2,3,5,6,7,8,18,19,25,26,27,28	12	.855
기술 · 능력	1,4,9,10,11,12~17,20~24,29,30	18	.842
전체		30	.873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13년 5월 중반부터 2013년 11월에 걸쳐 약 6개월 간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t-tset, one-way ANOVA, 상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p<.05$, $p<.01$, $p<.001$ 에서 검증하였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의 기술통계를 측정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전공, 학년, 진로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진로개발역량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사후검정은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진로결정수준, 진로개발역량 요인변수들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진로교육경험유무를 살펴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진로결정수준, 진로개발역량에 대한 진로교육경험유무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및 진로탐색경험에 따른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개발역량

1) 전공에 따른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개발역량 차이

(1) 전공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

음악대학 학생의 세부 전공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요인들 가운데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진로확신수

준은 성악전공이 6.8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현악전공과 작곡전공이 각각 5.77점, 5.5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482$, $p<.05$).

<표 5> 전공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

항목	전공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진로확신수준	건반악기	51	6.18 ^{ab}	2.14	2.482	.032*
	관악	52	6.06 ^{ab}	1.93		
	성악	51	6.80 ^b	2.00		
	작곡	49	5.57 ^a	1.80		
	한국음악	48	6.08 ^{ab}	1.71		
	현악	52	5.77 ^a	1.78		
진로 미결정 수준	건반악기	51	42.35	13.24	.953	.447
	관악	52	43.25	10.83		
	성악	51	39.06	10.52		
	작곡	49	42.33	8.32		
	한국음악	48	40.83	10.52		
	현악	52	41.27	10.80		

* $p<.05$, † : Duncan(사후검정) $a<b$

(2) 전공에 따른 진로개발역량의 차이

전공별 진로개발역량의 전체수준은 <표 6>과 같다. 전공별 진로개발역량은 모든 하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 전공별 진로개발역량의 차이

항목	전공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진로개발역량 전체	건반악기	51	100.55	16.31	1.877	.098
	관악	52	102.40	14.73		
	성악	51	104.59	12.66		
	작곡	49	97.31	11.77		
	한국음악	48	99.10	11.11		

2)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개발역량 차이

(1)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

음악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하위항목인 진로와 진로선택에 대한 진로확신수준은 2학년($M=6.22$), 1학년($M=6.11$), 4학년($M=6.08$), 3학년($M=5.95$)의 순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진로미결정수준은 3학년(M=42.58), 1학년(M=41.85), 2학년(M=40.86), 4학년(M=40.50)의 순으로 3학년에서 비교적 높은 진로미결정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진로결정수준 전체는 3학년(M=48.53), 1학년(M=47.96), 2학년(M=47.07), 4학년(M=46.58) 순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7> 학년별 진로결정수준의 차이

항목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진로확신수준	1학년	71	6.11	1.59	.271	.846
	2학년	69	6.22	1.89		
	3학년	91	5.95	2.10		
	4학년	72	6.08	2.06		
진로 미결정 수준	1학년	71	41.85	10.13	.612	.607
	2학년	69	40.86	10.29		
	3학년	91	42.58	10.27		
	4학년	72	40.50	12.57		

(2) 학년에 따른 진로개발역량의 차이

음악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전반적인 진로개발역량의 결과는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4학년(M=102.40), 3학년(M=101.41), 2학년(101.20), 1학년(M=98.52) 순으로, 4학년에서 비교적 높은 진로개발역량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8> 학년별 진로개발역량의 차이

항목	전공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진로개발역량 전체	1학년	71	98.52	12.76	1.137	.334
	2학년	69	101.20	13.45		
	3학년	91	101.41	13.65		
	4학년	72	102.40	12.79		

3) 진로탐색경험 유무에 따른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개발역량

(1) 진로탐색경험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

<표 9>는 진로탐색경험유무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차이를 보여준다. 전공 선택에 대한 진로확신수준은 진로탐색을 경험한 학생(M=6.42)이 경험하지 않은 학생(M=5.7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016$, $p<.01$). 진로미결정 수준은 진로탐색을 경험한 학생(M=41.10)보다 경험

하지 못한 학생($M=41.9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9> 진로탐색경험유무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차이

	진로탐색경험유무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진로확신수준	있다	145	6.42	1.73	3.016	.003**
	없다	158	5.77	2.04		
진로미결정 수준	있다	145	41.10	10.77	-.644	.520
	없다	158	41.91	10.88		
진로미결정 수준전체	있다	145	47.52	10.15	-.127	.899
	없다	158	47.67	10.02		

** $p<.01$

(2) 진로탐색경험에 따른 진로개발역량의 차이

음악대학 학생의 진로탐색경험 유무에 따른 전체적인 진로개발역량의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진로탐색경험 유무에 따른 전체적인 진로개발역량 차이

항목	전공	N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진로개발역량	있다	145	102.43	12.47	1.920	.056
전체	없다	158	99.53	13.74		

2. 진로탐색경험 유무에 따른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개발역량

1) 진로탐색경험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음악대학생의 진로탐색 유무에 따라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로탐색경험유무 영향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진로탐색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진로탐색경험이 있는 사람에게서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진로확신수준이 1.21배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진로탐색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진로탐색경험이 있는 사람에게서 진로 미결정 수준이 1.01배, 관점/태도 전체가 1.01배, 기술/능력 전체가 1.01배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11> 진로탐색경험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OR	95% CI	유의확률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진로확신수준	1.21	1.04-1.40	.012*
진로 미결정 수준	1.01	0.99-1.04	.331
관점/태도 전체	1.01	0.94-1.08	.855
기술/능력 전체	1.01	0.96-1.06	.696

*p<.05

OR : odds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표 12>와 같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개발역량이 진로탐색유무 간의 차이에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진로결정수준, 진로개발역량은 진로탐색경험유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550$, $p<0.05$). 진로탐색경험유무가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영역들 중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영향을 많이 주었는지 알아보기로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진로확신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1$), 진로 미결정 수준, 관점/태도 전체, 기술/능력 전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진로확신수준은 Adjusted R^2 이 0.026으로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진로확신수준의 총 변화량의 2.6%가 진로탐색경험유무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탐색경험유무는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진로확신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진로탐색경험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분산원	Wilk's λ (F)	단변인F	Adjusted R^2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진로확신수준	.967(2.550*)	8.973**	0.026
진로 미결정 수준	0.415	-0.002	.331
관점/태도 전체	2.941	0.006	.855
기술/능력 전체	3.529	0.008	.696

3.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개발역량

음악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한 상관분석에 대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음악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개발

역량은 전체 및 각각의 하위요인들과의 관계에서 대체적으로 정적 혹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 < .05$, $p < .01$, $p < .001$). 이에 대하여 먼저 전체적인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개발역량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본 후, 각각의 변인들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즉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개발역량의 전체적인 상관관계에 관한 것으로, 진로결정수준 전체와 진로개발역량 전체($r = -.301$)는 상관이 낮은 편이다. 즉,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학생이 진로개발역량이 높게 나타나거나 역으로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학생이 진로개발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영역인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진로확신수준과 진로미결정 수준에 상관관계가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진로확신수준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요인 상위 3개는 직업/취업정보 수집, 활용 능력($r = .427$), 평생학습능력($r = .396$), 네트워킹 능력($r = .384$)이다.

진로미결정 수준은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요소와 대부분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장 높은 부적관계를 이루는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요소 3개는 순서대로 의사결정기술($r = -.390$), 네트워킹 능력($r = -.388$), 자기이해 능력($r = -.359$)이며 반면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하위요소를 상관정도 순으로 보면 변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r = .076$), 진로전환능력($r = .036$)이다.

〈표 13〉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개발역량수준의 상관관계

구분	1	1-1	1-2	2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1.진로결정수준 전체	1															
1-1.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진로확신수준	-.308 ^(***)	1														
1-2.진로 미결정 수준	.986 ^(***)	-.465 ^(**)	1													
2.진로개발역량수준 전체	-.301 ^(***)	.471 ^(**)	-.364 ^(**)	1												
2-1.관점/태도 전체	-.243 ^(**)	.413 ^(**)	-.300 ^(**)	.914 ^(**)	1											
2-2.변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	.106	.130 ⁽⁾	.076	.336 ^(**)	.396 ^(**)	1										
2-3.긍정적 자아개념 유지능력	-.234 ^(**)	.328 ^(**)	-.277 ^(**)	.749 ^(**)	.820 ^(**)	.109	1									
2-4.평생학습능력	-.304 ^(**)	.396 ^(**)	-.354 ^(**)	.706 ^(**)	.746 ^(**)	-.083	.551 ^(**)	1								
2-5.다양한 역할 간 균형유지능력	-.251 ^(**)	.298 ^(**)	-.286 ^(**)	.756 ^(**)	.825 ^(**)	.056	.632 ^(**)	.617 ^(**)	1							
2-6.기술/능력 전체	-.312 ^(**)	.466 ^(**)	-.373 ^(**)	.966 ^(**)	.779 ^(**)	.269 ^(**)	.638 ^(**)	.619 ^(**)	.645 ^(**)	1						
2-7.자기이해능력	-.319 ^(**)	.351 ^(**)	-.359 ^(**)	.709 ^(**)	.636 ^(**)	.080	.533 ^(**)	.587 ^(**)	.576 ^(**)	.692 ^(**)	1					
2-8.직업/취업정보 수집, 활용능력	-.079	.427 ^(**)	-.150 ⁽⁾	.602 ^(**)	.453 ^(**)	.362 ^(**)	.320 ^(**)	.306 ^(**)	.269 ^(**)	.643 ^(**)	.260 ^(**)	1				
2-9.의사결정기술	-.366 ^(**)	.277 ^(**)	-.390 ^(**)	.626 ^(**)	.523 ^(**)	.037	.444 ^(**)	.451 ^(**)	.529 ^(**)	.636 ^(**)	.456 ^(**)	.139 ⁽⁾	1			
2-10.네트워킹 능력	-.344 ^(**)	.384 ^(**)	-.388 ^(**)	.701 ^(**)	.506 ^(**)	.155 ⁽⁾	.417 ^(**)	.426 ^(**)	.412 ^(**)	.764 ^(**)	.417 ^(**)	.433 ^(**)	.453 ^(**)	1		
2-11.업무능력	-.284 ^(**)	.360 ^(**)	-.329 ^(**)	.793 ^(**)	.671 ^(**)	.173 ⁽⁾	.592 ^(**)	.552 ^(**)	.556 ^(**)	.801 ^(**)	.540 ^(**)	.409 ^(**)	.506 ^(**)	.646 ^(**)	1	
2-12.진로전환 능력	.060	.110	.036	.511 ^(**)	.403 ^(**)	.240 ^(**)	.317 ^(**)	.238 ^(**)	.326 ^(**)	.535 ^(**)	.215 ^(**)	.305 ^(**)	.163 ⁽⁾	.160 ⁽⁾	.207 ^(**)	1

*p<.05, **p<.01, ***p<.001

V. 논의 및 제언

1.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1) 전공, 학년, 진로탐색경험에 따른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개발역량

(1) 전공에 따른 차이

음악대학 내의 세부전공에 따른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개발역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로결정수준의 하위항목인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진로확신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성악 전공이 높은 것으로, 진로미결정수준은 관악 전공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강승희(2010)의 연구와 성악 전공학생들이 높은 전공만족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 전경희 (1980)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성악 전공학생들의 높은 전공만족도가 진로와 전공에 대한 확신과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관악기 전공 학생이 전공교육과정에 대해 불만족 비율이 높고, 졸업 후 희망진로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이보아라(2012)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한편 전공 별 진로개발역량 하위영역 중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평생학습 능력이었다. 이 결과는 미술대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을 조사한 안선영(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다른 단과대학 졸업생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전공일치도가 50%를 넘지 않는데 반하여 음악대학 졸업생의 80%가 전공과 관련된 진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난 한효정(20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종합하면 타 전공계열에 비해 예술대학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전공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공 간 통계상 차이가 있는 하위항목은 직업/취업정보 수집, 활용능력으로 성악전공이 높고 작곡전공이 낮았다. 직업/취업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직업탐색과도 밀접히 관련 있는 것으로 진로탐색은 진로결정에 영향을 준다. 진로미결정 정도가 작곡이 높고 성악이 낮았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직업/취업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직업탐색은 진로결정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

고향자(1993)의 연구에서는 대학 계열 별 진로결정수준이 예·체능계열, 사회계열, 사범계열, 인문계열, 자연계열 순으로 높게 나타나 예·체능계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체능계 학생들이 타 계열 학생보다 적성과 흥미가 전공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이나 만족도가 높

으며 향후 직업 선택 시에도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이기 때문이다.

(2) 학년에 따른 차이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은 3학년, 1학년, 2학년, 4학년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학년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3학년 때 진로결정을 한다고 밝힌 이대용, 류동희, 김인환, 고태용(2011)의 연구결과와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일은 3학년이 가장 적절하다는 박경, 임경화(1998)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한편, 음악대학 학생들이 고학년일수록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보아라(2012)의 연구와 4학년이 2학년보다 유의미하게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고향자(1992)의 연구결과를 반증한다. 따라서 학년과 진로결정의 관계 규명을 위해서 진로와 관계된 여러 변인들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로개발역량은 4학년에서 1학년의 순서대로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4학년이 3학년보다 역량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던 안선영(2013)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반면 고등학생은 2학년, 1학년, 3학년의 순으로 진로개발역량이 나타난다고 주장한 이민희(2012)의 연구결과를 반증한다. 이에 학년이라는 변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학생들의 학년단계에 맞는 진로지도나 진로프로그램의 구안이 필요하다.

(3) 진로탐색경험의 유무에 따른 차이

진로탐색경험에 따른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개발역량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진로탐색경험이 있는 학생이 진로탐색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개발역량의 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탐색이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성버리(20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진로결정수준은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진로확신수준에서 진로탐색경험이 없는 집단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 이는 진로탐색경험 후 진로를 결정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진로에 대한 확신수준이 높아짐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진로개발역량은 평생학습능력, 직업/취업정보 수집, 활용능력, 네트워킹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진로탐색의 과정이 개인의 진로와 직업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하여 직업/취업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로탐색경험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나 직업과 관련된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자

신의 진로와 직업과 관련하여 평생 배우는 자세를 갖추어 업무에 대한 능력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본인의 자기개발에 힘쓰도록 도울 수 있다.

2) 진로탐색경험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진로탐색의 경험이 있는 학생이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진로확신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과 진로탐색행동의 관계를 연구한 김봉환(1997)은 확고하게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진로준비에 있어 행동수준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진로결정수준이 높지만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진로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진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동기는 매우 미약했다. 반면에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모두 높은 집단에 비해 진로에 관한 정체감이 매우 낮고 더 많은 특성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진로결정은 심리적 결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한 경험이 보다 높은 수준의 확신수준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3)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

음악대학 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개발역량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진로결정수준의 하위항목 전체와 진로개발역량의 하위항목 전체는 $r=-.301$ 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술대학 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개발역량의 상관관계가 $r=.578$ 로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고 밝힌 안선영(2013)의 연구결과를 반증한다.

세부적으로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영역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영역인 진로와 전공 선택에 대한 진로확신수준은 진로개발역량의 직업/취업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능력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427$). 진로결정수준의 하위영역인 진로미결정 수준은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영역과 대부분 부적 상관관계이나, 가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에 있는 하위영역은 의사결정기술이었다($r=-.390$).

위의 연구결과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영역인 정보수집활동이 높아진다는 박완성(2003)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진로미결정과 의사결정유형은 큰 상관을 보였고,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미결정과 높은 부적상관이 있었다는 정애경, 김계현, 김동민의 연구(2008)와 결과를 같이한다.

2.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소재의 음악대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대상을 표집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표집 범위를 넓혀 보다 다양한 환경과 배경을 가진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개발역량과의 관계성을 성별, 부모의 학력수준 및 직업, 가족 중 동일 계열 전공자의 유무 등 다양한 배경적 특성을 변인으로 하는 연구와 진로성숙도, 진로준비행동, 진로의사결정, 진로자아효능감 등과 같은 진로와 관련된 여러 변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와 같은 양적연구의 방법론적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음악대학 재학생이 음악대학을 졸업 후의 삶을 연구하는 종단연구와 같은 질적 연구를 통해 음악대학 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다차원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후속연구를 통해 진로에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의 상관성 및 인과성을 밝혀 음악대학 학생들에게 보다 더 최적화된 진로지도의 틀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승희 (2010). 공학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효능감 및 진로태도 성숙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29(3), 291-307.
-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 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재윤·이유경 (2012).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 9(4), 99-116.
- 박경·임경화 (1998). 서울여대생의 진로계획 및 취업준비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 연구. 11, 5-42.
- 박완성 (2003). 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성역할 정체감과의 관계. 교육방법연구. 15(1), 47-76.

- 성버리 (2012).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 유형에 따른 진로미결정 요인의 차이.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심윤경 (2007). 음악전공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감, 목표의식, 가치관에 대한 발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선영 (2013). 미술대학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과 진로결정수준의 상관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지선 (2004). 여대생의 진로미결정과 애착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나영 (2011). 음악전공자의 직무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지향방안에 대한 연구: 음악과 다른 학문과의 융합을 통한 고찰.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보아라 (2012). 관현악전공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조사 및 전공 교육과정 비교.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희 (2009).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진로탐색에 관한 연구: 직업역량 개발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7(4). 57-67.
- 이지연 (2001). 고등교육단계에서의 효율적인 진로지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전경희 (1980). 한국성악도들의 학습과정 및 의욕에 관한 조사분석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애경·김계현·김동민 (2008). 진로미결정 및 관련변인에 관한 국내연구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9(2), 551-564.
- 정환호·최진호 (2013).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전공선택요인 및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교과과정 적합도 분석. 음악교육연구. 42(3), 161-183.
- 최동선 외 (2008). 진로교육 정책의 성과와 추진 방향.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진호·정완규 (2009). 피아노 교수학 전공 선택요인 분석과 졸업 후 진로조사. 음악교육연구. 37(-). 215-244.
- 한효정 (2012). 대학생의 진로미결정과 내적통제성, 부적응적 완벽주의,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특성불안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Osipow, S. H., Carney, C. G., Winer, J. L., Yanico, B., & Koschir, M. (1976). *The Career Decision Scale*. Columbus, OH: Marathon Consulting & Press.

ABSTRACT

A Correlation between Career Exploration Experience,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of Undergraduate Music Major Students

Seung-Min Lee · Gun-Joo J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relations between career exploration experience,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by conducting a survey targeting from freshmen though seniors majoring in music. The 303 subjects were selected from music students in 13 universitie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4 sections, that is general characteristics as a background variable, career exploration experience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rom this study.

First, career exploration experience showed a great impact on lifelong learning ability, ability of gathering and utilizing vocational and employment information, and networking skills. Second,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in general characteristics such as students' grades, and major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Third, students'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showed a negative (-) correlation while their sub-domains showed a positive (+) correlation each other.

key words : career exploration experience,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투고일: 2014년 2월 28일, 심사(수정): 4월 25일(4월 30일), 게재확정일: 5월 12일